



박 경 배
(朴景培)

충청남도 기획관

I. 자치시대의 개막

국가적 과제로 강조되어온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서 95년 7월 1일 역사적인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얼핏 보아 지방화와 세계화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같지만, 향후의 국가경쟁력은 중앙에서의 성장 잠재력 보다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 이라고 볼 때, 지방화의 실현은 곧 세계화를 달성시킬 수 있는 초석이며, 따라서 지방화 없이 세계화를 통한 21세기 일류국가로서의 도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지방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표현이 지방화 시대의 특성을 출발하려는 사고방식이며 지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상대로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지방존중”의 표현인 것이다.

특히, 지방화는 지역간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지역간 경쟁의 원리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능력이 뒤떨어진 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상태로 인해 파산선고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무한경쟁의 세계화속에서 지역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정부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내고장, 내마을, 내지방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여 지방정부간 선의의 경쟁을 하고 특히, 각 지방의 대표적 산업과 고유하고 독특한 전래의 문화를 복원하고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I. 지금은 무한경쟁시대

오늘날 국제관계는 총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대열에

서 탈락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강대국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냉혹한 국제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세계화는 국가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이루어 나아가야 할 과제이며, 지방화 역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면에서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점에서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시대는 국경이 분명하고 경쟁의 압력을 덜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으며,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주체도 다양화, 세계화되고 있다. 기업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도 경쟁을 하고 학교와 공무원도 치열히 경쟁을 하는 시대다. 한마디로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광속시대라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이러한 빠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기 쉽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같은 미래학

자는 “현대는 상상력이 현실을 앞질러가는 시대가 아니라, 현실이 상상력을 앞질러 가는 시대이다”라고 갈파(喝破)한바 있으며, 이렇듯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때, 「미래의 충격」이라는 정신병을 얻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Ⅲ. 경쟁력 강화가 살길

얼마전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은 복경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을 三流라고 혹평한 바 있다. 당시 이 말로 인해 적지않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식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는 책임 전가식 주장만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적자생존의 시대이다. 三流행정을 一流로 끌어올리고, 자치시대의 증대되는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점차 격화되는 경쟁

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 조직, 지방, 국가의 모든 부문에 걸쳐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기초를 이루는 우리 공직자 개인들이 자치경쟁시대에 어떤 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1. 장인정신을 가진 프로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지역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들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칠 때 주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협조하게 되며,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지역발전의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방화시대에 실력없고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이 분야는 내가 최고다”라고 자신있

게 나서보자. 전문의(專門醫)처럼 주민들이 어떤 지역문제, 행정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면 어느 공무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보자.

2. 관료·권위주의 타파 등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의 전개와 함께 공무원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만연되어 온 우리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관료적 권위주의 행태는 곧바로 바뀌지 않고 있다. 하향적인 의사결정과 절차에 얽매이는 형식주의, 주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는 행태, 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서 계획을 짜는 탁상행정 등은 버려야 될 병폐로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행정이 남아 있고 아직도 공무원과 주민간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

다.

이제 이러한 행정의식과 행태는 우리 道 도정방침중의 하나인 「인본행정의 구현」에서 의도하고 있는 주민우선의 행정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인은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사기업은 이윤의 증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공공부문은 사회적 형평, 다양한 공익, 효율의 조화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서로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공직자들도 기업의 구성원들과 같이 자신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용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영마인드이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것처럼 공공부문도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만일 공공서비스가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또한 질적인 수준이 낮다면 시장기구나 민간부문에 의해 그 역할이 잠식될 수 밖에 없으며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다. 지방행정 서비스의 독점적인 지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와 효과를 산출해 내겠다는 경영의식 없이는 자치시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다운사이징」이란 용어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변신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 속에 요즈음 기업이나 기업인들 사이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경영혁신 이론들이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이러한 경영혁신 기법을 행정에 적용하고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가져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Ⅳ. 맺음말

전국민의 관심속에 올해 본

격 개막된 지방화 시대에 대해, 처음에는 지역감정과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란 부정적 양상이 현실로 나타나, 과연 지방자치가 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것인지에 회의감을 표하는 식자층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화 시대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거 중앙집권때와는 다른 주민본위행정, 경영행정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갈등과 마찰은 있지만 지방화의 출발은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의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전문지식과 함께 민주·경영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경제, 환경, 복지 등의 산적인 행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